

경희궁서 선보인 '보성 뇌원차 진상 행렬' 눈길

'천년 보성차' 왕실 진상 재연 제11회 보성세계차엑스포 D-30일 봄UP 페스타 성료

보성세계차엑스포 개최 30일을 앞두고 30일 녹차수도 보성군이 서울 경희궁에서 사전 홍보행사로 '봄업 페스타'를 개최했다.

30일 보성군에 따르면 봄업 페스타에서 고려시대 왕의 차로 알려진 '뇌원차' 진상 행렬과 진상식을 재연해 눈길을 끌었다. 행렬단은 오후 1시 흥화문을 출발해 승정전까지 행진한 후 특설무대에서 왕에게 뇌원차를 진상했다. 행렬단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손학래 보성세계차엑스포 공동조직위원장, 보성차인 등이 전통의복과 소품 등을 갖추고 참여했다.

진상식이 끝난 후에는 홍보대사 위촉식과 경희궁을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보성녹차 나눔 행사가 이어졌다. 아이돌 그룹 머스트비(남성 5인조)와 시그니처(여성 7인조), 서울 노원구 손영준 구의원, 서울 성북구 소현준 구의원 등이 보성군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보성군은 고려시대 뇌원차 진상행렬 재연을 통해 1000년 역사를 가진 보성차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리고,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열리는 제11회 보성세계차엑스포를 홍보를 위해 이번 '봄업 페스타'를 개최했다.



보성군은 보성세계차엑스포 D-30일을 앞두고 서울 경희궁에서 사전홍보 행사로 '봄업 페스타' 행사를 개최했다. 보성군 제공

진상식에 사용된 '뇌원차'는 고려시대 왕실에서 사용했던 어용차로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대동지지' 등에서도 기록을 찾을 수 있으며, 보성군 웅치면 약산마을 일대의 가을평다소에서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뇌원차는 사각 형태의 떡차로 구수하고 부드러운 끝 맛이 깔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단순 음용뿐만 아니라 고인이 된 신하에게 내리는 장례용, 거란에 보내는 예물용, 일반 신하에게 내리는 하사

용 등으로도 사용됐다고 알려져 있다. 보성세계차엑스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철우 보성군수는 "엑스포 개막 D-30일 행사로, 조선의 5대 궁궐 경희궁에서 왕의 차로 진상하는 재연 행사를 열게 돼 매우 뜻깊다"며 "엑스포 성공 개최를 통해 천년의 보성 차가 세계를 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녹차수도 보성군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차 재배 면적을 자랑하는 차 주

산지다. 농산물지리표시제 제1호 보성녹차를 비롯해 계단식 전동차 농업시스템은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보성세계차엑스포는 '천년의 보성 차,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보성다향대축제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불꽃축제 △일립산 철쭉제 △별고갯벌 레저벨레드 △전국단위 스포츠대회 △보성군민의 날 등 축제와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김은지 기자

순천시 신청사 건립 입찰공고 8월 착공... 2025년 11월 완공

순천시가 신청사 건립 공사를 추진할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조달청에 입찰공고를 냈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추진 중인 신청사 건립을 위해 건축공사 분야의 역량 있는 대형업체가 참여하는 기술형 입찰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입찰안내서 심의, 기술 검토 및 원가 검토 등을 거쳐 기술형 입찰방식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입찰절차는 오는 4월 19일 입찰 참가 자격서류 접수, 5월 2일 현장 설명회, 7월 3일부터 기술제안서를 접수 받아 공정한 평가를 거쳐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일정으로 진행된다.

순천시 신청사는 8월에 착공해 2025년 11월 신청사 완공 후 사무실 입주 완료할 계획이다. 2026년 7월까지 구청사 철거 후 신청사 건립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순천-배서준 기자

창조기업 평가 2년 연속 'S등급'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이 인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2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사업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사업평가는 매년 전국 50여개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센터 관리, 운영실적, 추진성과, 기업 만족도 조사 등의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등급을 결정한다.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1인 창조기업을 위해 △창업교육 △네트워크 활동 △전문가 멘토링 △자금지원 이외에도 정부사업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지식재산권 출원권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013년 개소 이후 △신규 창업 115개사, △고용창출 161명, △지식재산권 162건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인정받아 'S등급' 평가를 받았다. 박간재 기자

전남페미니즘대학 5기 개강 전남여성가족재단, 내달 4일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오는 4월 4일 100% 야간·온라인 과정으로 전남페미니즘대학 5기 기본과정을 개강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남페미니즘대학은 여성주의에 대한 전문지식을 기본, 전문, 심화 단계별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이다.

기본과정에서 페미니즘 기본개념을 정리하고 심화과정에서 페미니즘의 주요 사상에 대해 학습한다.

전문과정에서는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을 통해 학습한 주요 개념(젠더·섹슈얼리티 등)을 논문, 사건, 책 등을 토대로 토론과정으로 운영된다.

성혜란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올해는 여성주의에 대한 기본개념을 정리하고 해당 개념을 자신의 것으로 풀어보며 여성학에 대한 인식의 확장을 이룰 수 있도록 단계별로 구성했다"며 "지역사회 성평등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 맞춤형 교육·사업을 통해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나주시, 혁신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기공

사업비 680억... 2025년 준공

광주·전남공동(빛가람)혁신도시 정주여건 확충의 핵심 현안이자 나주 빛가람동 주민 숙원사업인 '복합혁신센터'가 첫 삽을 떴다.

30일 나주시에 따르면 29일 나주 빛가람동 199 부지에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에는 신정훈 국회의원, 윤병태 나주시장, 이상만 나주시의회 의장, 이재태 전남도의원, 임미란 광주시의원,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배일련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박소준 나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장 등 시의원, 김재익 나주시체육회장, 채성군 빛가람동 주민자치회장, 장영배 빛가람동 통장협의회장 등 시민, 건설 시공사 측 관계인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

장,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장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전KDN, 한전kps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들도 센터 기공식을 영상으로 함께 축하했다. 센터는 8832㎡ 부지에 연면적 2만191㎡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전시, 생활체육, 문화·여가 커뮤니티, 청년창업지원 등 융·복합시설로 체육·문화·소통·교류 공간으로 조성된다.

오는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680억원(국비 190억원·전남도 50억원·광주시 50억원·시비 390억원)이 투입된다.

지하 1층 주차장, 지상 1층 전시·세미나실을 비롯해 문화센터·2층 시민 커뮤니티실, 3층 청년 창업지원센터, 4층 청소년 문화센터·다목적 체육관, 5층 다용도 체육실 등 구성 예정이다. 실내 수영장은 지상 2층에 8레인, 길이 25m로 조성될 계획이다. 나주-박송엽 기자



함평 월야면 복지기동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과 함께 월야면 복지기동대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함평군 제공

조재호 농진청장, 전남 영농현장 방문 격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30일 전남농업기술원과 신안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방문해 중앙과 지방간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조 청장은 이날 박홍재 전남도농업기술원장으로부터 주요 성과와 올해 중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지난해 농촌진흥사업 및 각 분야별 우수 기관상 수상에 따른 노고를 격려했다.

박홍재 원장은 지난해 추진한 성과전시물과 함께 △디지털농업 선도모델 개

발 및 실용화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확대 조성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지원 △기상재해 대응 체계 구축 △특화작목 기술개발 및 맞춤형 소득작목 육성 등 농진청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신안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방문해 아열대 작목을 재배 중인 청년농업인들을 만나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재호 청장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목포문학박람회 자문·집행위 구성·준비 돌입

목포시는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목포문학박람회의 자문단과 집행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28일 위촉식을 갖고 준비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자문위원은 김호운(한국문인협회 이사장), 김종규(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문정희(국립한국문학관장), 윤정모(한국작가회의 회장), 전보삼(한국문학관협회 회장), 차혜영(차범석 장녀·차범석연극재단 이사장) 등 전국 문학단체장 20명으로 구성됐다.

집행위원회에는 김선태(목포대 교수), 정대훈(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지원부장), 정우영(전 국립한국문학관 사무국

장), 목포출신 젊은 작가인 서효인(시인, 안온북스 대표), 목포지역 문학단체장 등 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자문단과 집행위원들은 문학박람회 프로그램 등 기본계획을 공유하고 홍보 방안 및 평생교육 등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토론도 진행했다.

시는 자문·집행위원이 문학계, 축제관광, 유관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각 전문가로 구성된 만큼 분야별 세부 추진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2023 목포문학박람회'는 오는 9월 14~17일 목포문화관 일대, 원도심 등 목포시 전역에서 진행된다. 목포-정기찬 기자